

최태원 “탄소중립,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투자 이끌어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2030년 세계 탄소중립 투자규모
5조 달러 전망… 새 성장의 기회”

“감축 위해 섬세한 정책조합 필요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도와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6월에 이어 9월에도 해당 세미나를 열게됐다.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됐다. 이에 기업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의 형태가 돼야한다. 제도나 환경을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번째)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얼마나 탄소 감축을 맡길 것이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전 사회에 걸친 탄소 크기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8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쉽다.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잘 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관련 정부 대책 필요

세미나의 시작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창훈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부경대학교 교수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진작하는 자발적 탄소감축시장도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제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폐기물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부문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라며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공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

이재용, 파나마서도 부산엑스포 특사 활약

〈삼성전자 부회장〉

코르티소 대통령에 개최 지지 요청
삼성전자 현지법인 찾아 사업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특사 활동을 이어간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을 만났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8일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한데 이어, ‘특사’로 활동을 이어간 것.

앞서 삼성 경영진은 스페인과 스웨덴, 베트남과 네팔 등 전세계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해왔다. 이 부회장도 지난 8.15 특사로 복귀된 후 본격적으로 지지를 당부하면서 지원 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첫째 지점인 파나마 법인을 찾아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통해 현지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사업 현장에 파견돼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한 장기 출장 직원들에 굴비 세트를 보내며 격려하기도 했다. 업무와 육이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와 사회에 헌신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배우자와 자녀들 86명에게까지 갤럭시 폴더블폰과 초고성능 태블릿 PC를 전달하기도 했다.

선물을 받은 임직원들은 피로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일 수 있었다며 격려에 보답해야겠다고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에스원의 한 직원은 작은 계열사의 현장 근무자까지 챙겨줘 ‘삼성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김재용기자 juk@

‘제로코로나’ 고삐… 中, 관광·소비 ‘털썩’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중추절 연휴 앞두고 강화지침 공개
“연휴기간 관광산업 더 나빠질 것
향후 몇 달 동안 여행·소매 타격”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방역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중추절(중국의 추석)에 이어 국경절 연휴가 있는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둔 탓이다.

이동자제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방역 고삐를 더 조이면서 연휴 특수는 커녕 경제 피로감만 더 쌓이게 됐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중추절 기간(10~12일) 동안 관광 수입은 28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줄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39.4%로 더 확대된다. 중국 국내 관광객은 734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중추절 연휴에 앞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공시했다.

국경절 연휴와 당 대회가 예정된 다음달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나 단체 모임은 자제토록 했고, 항공기나 열차, 선박 등의 승객들은 48시간 이내 핵산(PCR)검사 음성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AP·뉴스

특히 수도권 베이징의 경우 7일 이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나 구에서는 아예 진입할 수가 없다. 베이징에 들어온 후에도 24시간 내 1차로 PCR 검사를 받고, 이어 72시간 이내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산업의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각 지역에 강화된 제로 코로나 통제 조치로 2배 이상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극장가도 썰렁했다. 연휴 동안 중국의 전국 박스오피스는 3억7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4% 급감했다. 2017년 이후 최저치다.

노무라 루팅 경제학자는 “중국의 엄격한 방역정책은 연장되거나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몇 달 동안 여행과 소매판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당 대회 이후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전역에서 일부 봉쇄나 이동 제한이 실시됐으며, 약 2억9170만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 지역이 중국 총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5%다. 노무라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6%로, 연간 성장률은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병 지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